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불안애착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박지수[†]

명지대학교 인지행동치료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불안애착, 분노반추 그리고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살펴본 뒤,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불안애착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총 485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척도, 성인애착 척도, 분노반추 척도,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응답을 한 질문지를 제외하여 총 44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한 기술통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SPSS Macro 3.4를 이용한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하였으며,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불안애착, 분노반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모두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에서 불안애착과 분노반추는 순차적인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 대한 논의와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불안애착, 분노반추, 대학생, 이중매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지수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 재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03674
Tel: 010-7647-8827 / E-mail: qkrwlt08@naver.com

■ 서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분노조절장애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 약 7,000여명으로, 이는 2015년 5,390명에 비해 약 26%나 증가한 것이다. 그 중 연령대별 분노조절장애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는 실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특히 20대 중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인 동시에 초기 성인기에 중복 해당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속한다(이승형, 2010). 이들은 새로운 변화와 관계 속에서 다양한 범주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이창은, 2013) 분노,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Ottaviani et al., 2016). 그 중 특히 분노는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킨다(김남연, 양난미, 2012). 따라서 대학생에게 있어 분노를 조절하고 적응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노 정서는 어떻게 조절하고 표현하는지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는 다양하며(김진영, 2010), 문제해결의 동기부여와 같은 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과한 표출이나 억제를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적 역할도 한다(Sharkin, 1988). Spielberger 등(1995)은 분노표현을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분노조절은 적응적인 분노표현이며,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분류하였다(Gottlieb, 1999; Hanh, 2001). 역기능적 분노표현 경향이 높을수록 폭식행동과 상관성이 높았으며(문소현 외, 2009; Zaitsoff et al., 2002), 높은 우울감(이혜

림, 이동훈, 2016)과 절망감으로 인한 자살 위험성 또한 높았다(김교현, 2000; 이경순, 김교현, 2000).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경우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권선주, 이정숙, 2018; 전원희 외, 2015), 대인관계 문제(이명인 외, 2021)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분노를 적응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서적 외상은 정서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합쳐진 의미로(Shaffer et al., 2009), 신체적 외상과 다르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으며(O'Hagan, 1995), 장기적인 심리·정서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geland, 2009; Wright et al., 2009).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외상이 신체적 외상보다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경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Egeland, 2009; Wright et al., 2009).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들(김은석, 이지연, 2018; 이나영 외, 2017; 장지윤 외, 2014)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역기능적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 분노는 외상사건에 대한 인지과정을 거쳐 떠오르는 정서이기 때문에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조환익, 최종환, 2013; Dalgleish & Power, 2004).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자기심리학적 관점(Ornstein, 1999)과 대인신경생물학적 관점(Solomon & Siegel, 2003)의 두 가지 이론 모두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분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분노 정서가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과

정을 통해 떠오르는 정서반응임을 미루어 볼 때,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으로 인한 역기능적 분노 표현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적인 경로가 존재함을 가정해 볼 수 있다(김은정, 김진숙, 2010; 이유경,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가정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발달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평가이론에서는 분노란 사건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닌 개개인의 신념체계에 따라 사건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닌 개개인의 신념체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유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Deffenbacher & McKay, 2000). Bowlby(1980)는 이러한 개인의 신념체계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라고 하였다. 초기연구에서 애착이란 영아와 주 양육자 사이에서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그 의미가 영유아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인기까지 확장되어 초기에 만들어진 애착 유형이 전 생애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초기 양육자 외에 어떤 사람과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Sroufe et al., 2005).

Bowlby(1969/1982)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성인애착이란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기반한 개념으로, 자신에게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과 신체·심리적 근접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Main et al., 1985). 성인애착은 다양하게 개념화 되었는데, 그 중 Brennan 등(1998)은 선행되던 성인애착 척도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애착과 관련된 불안(이하 불안애착)과 애착과 관련된 회피(이하 회피애착)의 두 가지 차원

을 주목하였다. 애착 유형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변인인 불안애착은 그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아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에 집착적인 사랑과 관심을 요구한다고 한다(Mikulincer et al., 2003).

성인 애착과 분노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불안애착 경향이 높은 경우 안정 애착 집단보다 분노와 적대감이 많았으며(Meesters & Muris, 2002), 분노억제나 분노표출과 같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응임, 이은정, 2020; 최수정, 이동훈, 2019; Mikulincer, 1998). 즉, 불안애착 경향이 높은 경우 분노 상황에서 이성적인 대처보다 편집증적인 인지 편향을 갖으며, 이로 인해 분노의 원인에게 보복하거나 처벌하려는 충동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Mikulincer, 1998).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과 관련된 또 다른 변인으로 분노반추를 살펴보았다. 반추는 분노를 유발하는 인지과정 중 하나이며, 분노와 관련된 문제들을 야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Bushman, 2002; Martin & Dahlen, 2005). 반추의 한 종류인 분노반추는 분노를 경험하는 당시 뿐 아니라 분노를 경험한 후에도 불수의적으로 사고하는 인지과정을 뜻한다(Sukhodolsky et al., 2001). 반추는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이기때문에, 일종의 정서조절의 방략이라고 볼 수 있다. 분노반추를 정서조절 방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나(배라영, 최지영, 2018; Bushman, 2002), 반대로 분노를 심하게 억제하기도

하였다(Martin & Dahlen, 2005). 이렇듯 분노반추로 인해 분노를 적응적으로 조절하지 못 할 경우, 감정이 점차 지속되거나 심화되어 역기능적으로 표출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이은화, 2010). 이러한 반추는 아동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외상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urnette et al., 2007),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비의도적으로 반추한다고 보고하였다(배라영, 최지영, 2018).

한편, 불안애착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과잉 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경향성이 보고되었다(Cassidy & Kobak, 1988). 반추는 과잉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에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Nolen-Hoeksema, 1991).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불안애착과 반추의 영향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김병직, 오경자, 2009; Lanciano et al., 2012). 이렇듯 반추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이기 때문에 불안애착 경향이 높을수록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지과정이 더 활성화되며, 그 결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지속시키게 된다. 매개 변인으로 추측된 불안애착과 분노반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분노반추는 분노사건에 초점을 둔 반추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불안애착과 반추로부터 그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분노반추가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 순차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불안애착, 분노반추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로 보고되어 왔다(박응임, 이은경, 2020; 최수정, 이동훈, 2019). 세 변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지영, 손정락, 2009)가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원인이 어린 시절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애착 유형에서 그치지 않고 분노 상황을 해석하는 개인의 인지적 과정에 의한 결과라고 가정하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며, 이때 불안애착과 분노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이중매개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할 것이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불안애착, 분노반추, 역기능적 분노표현 각각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애착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8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시행하였다.

485부의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을 하지 않거나, 복수 응답을 한 질문지는 배제하였다. 배제한 질문지를 제외한 445부의 질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자들의 성별은 전체 445명의 대학생 중 남학생이 195명(43.8%), 여학생이 250명(56.2%)이었다. 또한 전체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 60명(13.5%), 2학년 103명(23.1%), 3학년 135명(30.3%), 4학년 143명(32.1%), 기타 학생(5학년 이상)은 4명(.9%)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5)

변인	구 분	명(N)	비율(%)
성별	남 자	195	(43.8)
	여 자	250	(56.2)
학년	1학년	60	(13.5)
	2학년	103	(23.1)
	3학년	135	(30.3)
	4학년	143	(32.1)
	기 타	4	(.9)

2. 연구도구

1) 역기능적 분노표현 척도

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 중 역기능적 분노표현 경향에 대한 측정을 위해 전점구 등(1997)의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STAXI-K(State-Trait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를 사용하였다. 이는 Spielberger 등(1988)에 의해 개발된 것을 번안·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의 5가지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정의(Gottlieb, 1999)되는 분

노표출과 분노억제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4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2)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척도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Bernstein과 Fink(1998)에 의해 개발된 아동기 외상 척도 CTQ(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를 이유경(2006)이 수정하고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각각 5문항과 타당도 3문항으로 총 28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에 해당되는 변인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으로 정의되어지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에 해당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Shaffer et al., 2009). 각각의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 일어나지 않았다-3: 자주 일어났다)이며, 정서적 방임 문항은 모두 역채점하며, 종합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시절 경험한 정서적 외상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불안애착 척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불안애착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Fraley 등(2000)에 의해 개발된 친밀관계경험척도를 김성현(2004)이 번안·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불안애착(18문항), 회피애착(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주제에 맞게 불안애착 1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애착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4) 분노반추 척도

마지막 변인인 대학생의 분노반추 경향을 측정하고자 Sukhodolsky 등(2001)에 의해 개발된 분노반추 척도 K-ARS(Anger Rumination Scale)를 이근배와 조현춘(2008)의 연구에서 번안·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원인반추(3문항), 기억반추(8문항), 보복반추(5문항)로 구성된 총 16문항의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거의 그렇지 않다-4: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반추의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노반추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3. 연구절차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예비 연구를 위해 2019년 5월 8일 서울시 소재의 대학교 아동학과 재학생 26명을 모집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을 통해 질문지 문항의 이해 정도의 원활함과 오타 확인을 한 뒤, 특별한 수정 없이 질문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6월에서 8월까지 서울 소재 대학

교에 재학 중인 485명의 대학생을 임의표집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질문지 중 응답이 없거나 이중 응답한 40부를 제외하고 44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그리고 SPSS Macro 3.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의 Model Number 6을 활용하여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표본은 성별을 통제한 뒤 10,000번의 추출을 통하여 분석 하였으며, 신뢰구간 95%를 지정하였다.

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불안애착, 분노반추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상관관계

먼저, 각각의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정규성 기준인 3과 10을 넘지 않았

<표 2>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445)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0	29	5.14	5.93	1.45	1.79
불안애착	18	114	57.35	20.14	.17	-.44
분노반추	16	64	33.01	10.10	.60	-.03
역기능적 분노표현	16	64	31.36	7.96	.64	.74

〈표 3〉 변인들의 상관분석

(N=445)

	1	2	3	4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1			
2. 불안애착	.39***	1		
3. 분노반추	.35***	.48***	1	
4. 역기능적 분노표현	.34***	.45***	.61***	1

*** $p<.001$

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0).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각각의 변인들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상관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은 불안애착($r=.39, p<.001$), 분노반추($r=.35, p<.001$) 그리고 역기능적 분노표현($r=.34, p<.0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불안애착은 분노반추($r=.48, p<.001$), 역기능적 분노표현($r=.45, p<.001$)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분노반추 또한 역기능적 분노표현($r=.6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공차한계(Tolerance)는 .71~.82로 모두 .1이상이며, 분산팽창요인(VIF)은 1.22~1.40으로 그 값이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불안애착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애착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을 통제 한 후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 중 이중매개모형을 측정하는 Model No.6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먼저 <표 4>의 경로별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은 제1 매개

〈표 4〉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애착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N=445)

단계	B	β	S.E	LLCI	ULCI	$R^2(F)$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역기능적 분노표현	.44	.33***	.06	.32	.56	.12(30.66***)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불안애착	1.26	.37***	.15	.96	1.55	.16(42.33***)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분노반추	.33	.19***	.08	.18	.47	.26(52.65***)
불안애착→분노반추	.21	.42***	.02	.16	.25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역기능적 분노표현	.13	.10*	.05	.02	.23	.42(79.74***)
불안애착→역기능적 분노표현	.07	.17***	.02	.03	.10	
분노반추→역기능적 분노표현	.39	.50***	.03	.33	.46	

* $p<.05$, *** $p<.001$

〈표 5〉 〈표 4〉의 이중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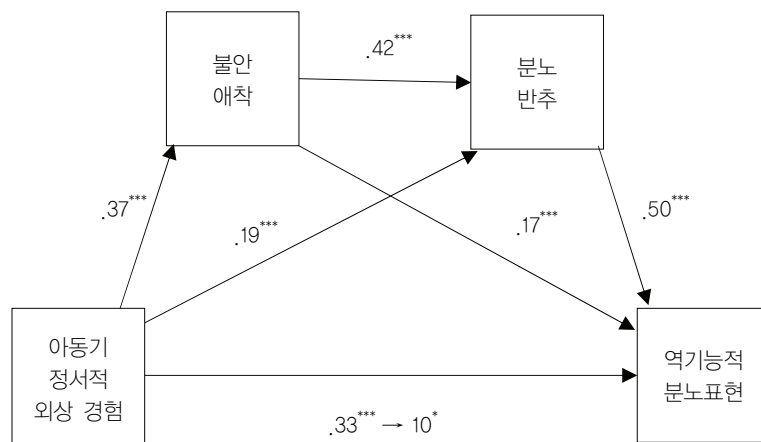
(N=445)

	단계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총 간접 효과	.31	.05	.22	.40
Ind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불안애착→ 역기능적 분노표현	.08	.03	.04	.14
Ind 2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분노반추→ 역기능적 분노표현	.13	.04	.06	.20
Ind 3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불안애착→ 분노반추→역기능적 분노표현	.10	.02	.06	.15

변인인 불안애착($\beta = .37, p < .001$)과 제2 매개변인인 분노반추($\beta = .19,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1 매개변인인 불안애착은 제2 매개변인인 분노반추($\beta = .42, p < .001$)와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분노표현($\beta = .17, p < .001$)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개변인들을 고려했을 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eta = .33, p < .001 \rightarrow .10, p < .05$)

이중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06 ~ .15), 신뢰구간 95%에서 각각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영가설이 기각되어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많은 수록 불안애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분노반추 경향을 높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결과를 도식화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불안애착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불안애착, 분노반추 그리고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뒤,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에서 불안애착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불안애착, 분노반추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경향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이지영, 손정락, 2010; 조환익, 최종환,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역기능적 분노표현 중 특히 분노억제와 관련이 높다는 연구(이나영 외, 2017)와도 부분적으로 의미를 같이 한다. 즉, 부모로부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분노 유발 상황에서 원인 대상에게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혹은 정 반대로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억제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의 불안애착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경험이 전 생애동안 지속되어 성인기의 애착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Sroufe 등(2005)의 연구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혹은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으로 방임을 당하거나 욕설, 모욕감과 같은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대학생이 되어서도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불안정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에 있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불안해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의 분노반추 경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반추가 반추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반추를 많이 하게 한다는 Burnette 등(2007)의 연구에 의해 지지되는 결과이다. 즉, 어린 시절 주 양육자에게 정서적 외상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을 때 정서조절 방략으로 적응적인 감정조절보다는 분노반추를 더 많이 사용하여 분노상황을 계속 떠올리거나, 보복 또는 원인파악에 초점을 두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애착과 분노반추가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은 대학생의 불안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분노반추를 거쳐 최종적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와의 불안애착 형성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박응임, 이은경, 2020; 최수정, 이동훈, 2019)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할 경우 정서조절곤란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선행연구(김은정, 김진

숙, 2020; 이명인 외, 2021)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의 한 방법으로 분노반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며(배라영, 최지영, 2018), 혹은 반대로 분노를 심하게 억제한다는 연구결과(Martin & Dahlen, 2005)와 맥을 같이 한다. 종합하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경험은 아동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인기까지 영향을 주어, 주요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형성하게 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혹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분노 상황에서 편집증적 인지 편향으로 적응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분노 사건에 대해 불수의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이는 대체로 원인을 찾고 보복하려 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분노감정을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기보다는 유지시켜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양육자로부터의 아동기 외상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신체적 외상과 달리 정서적 외상은 즉각적인 영향이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이 축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성인기까지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안정한 대인관계, 부적응적인 인지과정 및 정서조절 등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다양한 어려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기존의 양육방법에 초점이 맞춰진 부모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의 중요성을 다룬 부모교육이 보편화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상담적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법이 정서·행동적 어려움, 심혈관 질환 등을 야기하고 나아가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타인에게까지도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에 중요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노조절과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에게 정서조절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의 부적응적 스키마를 찾고 그것을 인지적재구조화 할 수 있으며, 적응적인 분노표현 방법의 연습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 경향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종합적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표집 당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임상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이 선별된 것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있어 한계점이 존재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있어 질문지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이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독립변인의 경우, 본인이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주관적으로 기록될 것이며, 혹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경험이기 때문에 회피 또는 부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변인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 진단 기준에 의한 임상군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지 사용 시 자기보고식 척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터뷰 방식을 더해 왜곡된 반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보건의료빅데이터. <https://opendata.hira.or.kr/hpme.do>에서 2021.12.03. 자료 얻음.
- 권선주, 이정숙 (2018). 대학생의 분노 반추가 대학생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노 경험 및 분노 표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3), 1-19.
- 김교현 (2000). 분노 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181-192.
- 김남연, 양난미 (2012). 부모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309-2328.
- 김병직, 오경자 (2009).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 반추와 정서억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357-375.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석, 이지연 (2018).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 진입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9(3), 403-429.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 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은정, 김진숙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경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3), 23-44.
- 김진영 (2010).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 통제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25-746.
- 문소현, 정영해, 김정혜 (2009). 학령기 후기 아동의 분노, 분노표현에 따른 섭식장애. *한국아동간호학회지*, 15(2), 127-135.
- 박용임, 이은경 (2020). 부모와 불안정 애착이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직렬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2), 63-81.
- 배라영, 최지영 (2018). 정서적 학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2(1), 29-52.
- 이경순, 김교현 (2000). 분노억제경향과 문제해결이 분노 정서 경험과 혈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60-72.
- 이근배, 조현춘 (2008). 한국판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1-22.
-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203-222.
- 이명인, 서혜영, 황순정 (2021).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295-305.
- 이승형 (2010). 남녀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전략,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 (2010). 분노반추와 용서,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손정락 (2009).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성인애착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7(1), 81-89.

- 이창은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4), 13-22.
- 이혜림, 이동훈 (2016). 한부모가정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이 우울과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4(1), 25-52.
- 장지윤, 이경순, 장은영 (2014). 수행자들의 기질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23.
- 전검구, 함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전원희, 조명주, 나현주 (2015).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3), 219-228.
- 조환익, 최종환 (2013).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초기 성인기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용서신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9), 125-148.
- 최수정, 이동훈 (2019).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1), 69-93.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retrospective self-report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urnette, J. L., Taylor, K. W., Worthington, E. L., & Forsyth, D. R. (2007). Attachment and trait forgivingness: The mediating role of angry 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8), 1585-1596.
- Bushman, B. J. (2002). Does venting anger feed or extinguish the flame? Catharsis, rumination, distraction, anger, and aggressive respond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6), 724-731.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assidy, J., & Kobak, R. R. (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 to other defensive processes.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300-323). Hillsdale, NJ: Erlbaum.
- Dalgleish, T., & Power, M. J. (2004). Emotion-specific and emotion-non-specific component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mplications for a taxonomy of related psychopatholog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9), 1069-1088.
- Deffenbacher, J. L., &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A protocol for the treatment of anger based on relaxation, cognitive restructuring, and coping skills training*. Oakland, CA: New Harbinger.
- Egeland, B.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Abuse & Neglect*, 33(1), 22-26.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Gottlie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ker & Co. Press.
- Hanh, T. N. (2001). *Anger*. New York: Riverhead Books.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anciano, T., Curci, A., Kafetsios, K., Elia, L., & Zammuner, V. L. (2012). Attachment and dysfunctional rumination: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abil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6), 753-758.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 66-104.
- Martin, R. C., & Dahlen, E. R. (2005).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7), 1249-1260.
- Meesters, C., & Muris, P. (2002). Attachment style and self-reported agg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90(1), 231-235.
- Mikulincer, M. (1998).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the sense of trust: An exploration of interaction goals and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09.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 O'Hagan, K. P. (1995). Emotional and Psychological Abuse: Problems of Definition. *Child Abuse & Neglect*, 19(4), 449-461.
- Ornstein, PH. (1999)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rage in self psych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3), 283-293.
- Ottaviani, C., Thayer, J. F., & Verkuil, B. (2016). Physiological concomitants of perseverative cognition: A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 Bull*, 142(3), 231-259.
- Shaffer, A., Yates, T. M., & Egeland, B. R. (2009). The relation of emotional maltreatment to early adolescent competence: Developmental processes in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33(1), 36-44.
- Sharkin, B. S. (1988).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6(8), 361-365.
- Solomon, M. F., Siegel, D. J. (2003). Healing Trauma; attachment, mind, body and brain. In Shapiro F, Maxfield L (Eds). *EMDR and information processing in psychotherapy treatment: Personal development and global implications* (pp. 196-220).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3), 207-232.
- Sroufe, L. A., Egeland, B., Carlson, E., & Collings, W.A (2005). Placing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in developmental context. Attach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ajor longitudinal studies. In K. E. Grossmann, K. Grossman, & E. Waters (Eds.) *Attach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ajor longitudinal studies* (pp. 48-70).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Sukhodo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 Wright, M. O. D., Crawford, E., & Del Castillo, D.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 Neglect*, 33(1), 59-68.
- Zaitsoff, S. L., Geller, J., & Srikameswaran, S. (2002).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d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The Professional Journal of the Eating Disorders Association*, 10(1), 51-60.
- 원고접수일: 2021. 12. 06.
수정원고 접수일: 2021. 12. 19.
게재 결정일: 2021. 12. 27.

The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Anxious Attachment and Anger Rumination

Park, Ji Soo (Cognitive Behavior Therapy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ual mediating role of the anxious attachment and anger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a sample of 445 students who were enrolled universities in Seou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s 21.0. In addition, dual mediation effect analysis was performed on Hayes(2013)' SPSS Macro, and significance test of mediation effect was performed on bootstrapping.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anxious attachment, anger rumination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were in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variables. Second, anxious attachment and anger rumination had dual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findings, the implication and follow-up research were discussed.

■ *Key words :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xious Attachment, Anger Rumination, University Students*